

사할린섬의 신석기시대 원주민의 발자취와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 중기신석기시대 소니문화 자료를 바탕으로*

방민규**

| 목 차 |

I. 머리말	IV. 중기 신석기시대 원주민의 삶과 해양자원 활용
II. 사할린섬의 자연·지리적 배경	V. 맺음말
III. 소니문화(культура Сони)의 고고학적 배경	

| 논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할린의 중기신석기시대 문화인 소니문화(Sony Culture)의 고고학 유적인 주거지와 토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기 신석기시대 원주민들의 자원활용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소니문화는 사할린 남부 신석기시대 중기문화로 5,500-5,300년 전 출현해 800-1,000년 정도 존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25개 정도의 유적이 발굴되어 문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적들은 대부분 바다를 바라보는 해안가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지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주거 유적인 쿠즈네초보 3, 4(Кузнецово 3, 4), 스타로두부스스코예 3(Стародубское 3), 슬라브나야 4(Славная 4), 차이보 6(Чай во 6) 유적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검토하였다.

소니문화 원주민들은 평면형태가 사각형인 반수혈 주거지에 거주하였으며, 4-5개의 집들로 구성된 주거군이 해안가에 따라 집중분포 되어 있다. 주거지 내

* 본 논문은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NRF-2019S1A8A8101759).

** 국립해양박물관 선임학예사

부에서는 화덕과 함께 바닥이 평평하고 몸체가 네모난, 표면 장식이 없고 삼각형 돌출부가 구연부에 장식된 소니유형 토기를 사용하였다. 어망추, 해양동물형상의 공예품 그리고 대형어류와 해상포유류의 뼈들이 집중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소니문화 원주민들은 해양을 토대로 사할린섬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주제어: 사할린섬, 원주민, 신석기시대, 주거지, 토기

I. 머리말

러시아 영토 최동단에 위치한 사할린섬(Остров Сахалин)¹⁾의 원주민들인 니브흐인(Нивхи), 아이누인(Ай ньи), 율타인(Ульта)은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이 있기 전까지 갈등과 공존을 반복하며 섬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왔다(이은경 2021).

이들이 살아온 사할린의 최초 인류 발자취는 적어도 23만 년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Василевский 2017). 지난 20년간 사할린에서 진행된 사할린-2 프로젝트(1994-2009)²⁾는 장기간의 공사와 파이프라인 공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개발 지역 내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공사를 진행했다. 구제발굴을 통해 구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이 발견되었으며 사할린의 중기 신석기시대 소니문화에 속하는 여러 유적들 또한 발견되었다(Василевский & Грищенко 2016).

한국 고고학자들은 그간 러시아 고고학자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통해 시

1) 정식 지명은 '사할린섬'이지만,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할린'으로 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할린'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사할린의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로 오호츠크해의 필턴-아스토크스(Piltun-Astokhskoye) 유전과 룬스코예(Lunskoe) 천연 가스전 개발과 연안의 관련 기반시설 개발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트랜스사할린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사할린에너지와 사할린국립대학교가 구제발굴을 진행했다(Василевский 2017).

베리아(후기구석기문화)와 연해주(고구려, 옥저, 발해) 지역과 관련된 연구 주제에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이현중 2018; 강인욱 2021). 한편 후기구석기시대 이후 신석기시대 한반도와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지역의 관계와 관련된 고고학 연구는 정석배(2008)의 연구 정도였다. 최근 한국학계에 시베리아와 극동 연해주에 대한 신석기시대 문화에 대한 소개가(Alkin 2014; 김재윤 2017) 간헐적으로 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자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신석기시대 문화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자료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실적 상황과 함께 한국학계의 러시아 고고학 자료에 대한 편년 등과 관련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의 선사문화는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그리고 사할린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시대에 걸쳐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석기시대 고고학 연구성과들과 관련하여 한국학계는 러시아학자들의 최근 연구성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시각으로 러시아 연구성과를 수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이현중 2007). 이런 결과는 양 지역 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양측이 제시한 편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양측의 연대 차에 대한 검토 및 정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양 지역의 자료를 양측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검토해야 한다(방민규 2015). 특히 사할린의 고고학 발굴 연구성과는 그간 국내 학계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김재윤 2017).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사할린의 중기신석기시대 문화인 소니문화를 소개하고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지역과의 편년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할린의 중기신석기시대 문화인 소니문화(культура Сони)의 고고학유적인 주거지, 토기의 양식 그리고 해양자원 활용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과거 사할린 원주민의 삶의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1> 러시아 극동의 지리적 분포



II. 사할린섬의 자연·지리적 배경

지난해 연말(2021년 12월 23일) 사할린 동포³⁾ 334명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영구귀국하면서 관심을 받았으나 한국인에게 사할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북방의 영토로만 기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북방4도, 북방열도)를 둘러싼 치열한 영토분쟁의 현장이기도 하다.

사할린은 타타르 해협과 오호츠크해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최대의 섬으로, 세계에서 23번째로 큰 섬이다. 섬의 이름은 ‘검은 강의 바위’라는 뜻의 ‘사할랴 울라(Сахалия-Улла)’⁴⁾라고 일컫는 아무르강에서 유래한 것으로

3) 2021년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938-1945년 사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이주한 한인은 약 15만 명이었다. 현재 한인과 후손 4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0).

4) 이 명칭이 중세 지도에서 제작자의 실수로 섬의 이름으로 표기되었고, 이후 다른 지도에서도 계속 사용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사할린’ 또는 ‘사가렌’이라는 명칭은 청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3인의 예수회 수도사가 청 제국의 판도를 측량하던 중에

보고 있다. 사할린의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인과 율타인은 카리프(Карип) 또는 카라프타(Карапта)로, 또한 사할린을 비롯해 아무르강 하류에 살고 있던 원주민 니브히인은 이호-미프(Ых-миф)라고 불렀다(Бой ко 1988).

최초의 러시아 탐험가들은 사할린섬을 불쇼이섬으로 불렀고, 19세기 유형수들은 소콜린(Соколин) 또는 소콜리니섬(Соколи-ный остров)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생각했으며, 일본인들은 초기 ‘검은 자작나무의 섬’ 또는 ‘중국인들의 섬’이란 뜻의 초카(Чжока), 시샤(Шисша)라고 불렀다. 일본은 사할린을 가라후토(樺太)라고 일컫는데, 이는 이곳의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인이 사할린섬을 ‘카무이 카라 푸토 야 모시르(камуй -кара- путо-я-мосир)’로 부른 데서 유래한다. 아이누인인 역시 흑룡강 하구에서 보이는 사할린섬의 위치에 주목하여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메이지 정부에서는 사할린 남부를 가라후토로 지칭하고, 사할린 북부는 사가렌으로 구별하기도 했다(이은경 2021).

이처럼 사할린은 오래전부터 아무르강을 기점으로 여러 종족집단에게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의 유역에 걸쳐 있을 정도로 큰 아무르강은 고대로부터 동북아시아의 교통로이자 북방문화의 중요한 발생지였다. ‘검은물’과 ‘하구’에서 기원한 명칭은 인접한 강의 색깔과 강에서 바라본 위치를 토대로 고대인들이 섬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문헌자료에 처음 사할린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11세기이다. 고대 중국지리지서 『산해경(山海經)』에는 중국 북동쪽에 ‘검은 다리의 왕국’인 황구오가 있으며, 북쪽으로 더 가면 ‘털복숭이 왕국’인 미오링고와 라오족의 라오밍이 있다고 언급했다(Яншина 1977).⁵⁾

중세 초에 사할린에는 두 개의 종족집단이 확실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쪽에는 홋카이도섬에서 온 아이누인이 정착했고, 아무르강 하구에서 온 니브호인이 북쪽에 정착했다. 러시아인이 아무르강에 등장하기 전까

아무르강 하구 맞은편에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주어로 ‘사할란 올라 앙가 하타(Сахалян ула анга хата)’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이은경 2021).

5) 이 책의 주석은 마오밍고가 동남아시아 민족 중 하나이며 라오밍은 섬에 사는 민족 중 하나(Яншина 1977)라고 밝히고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니브호인과 아이누인의 평인 사할린에 대한 언급으로 추측한다.

지 니브호인은 오랫동안 중국과 교류를 해왔다. 13세기에 이르러 사할린은 치열한 갈등 속에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Василевский 2017). 바로 몽골의 일본 정복이라는 목적으로 아이누인을 사할린에서 쫓겨 나지만 몽골은 이내 사할린에서 철수한다(윤성학 2021). 이후 16세기 초 일본의 막부가 사할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러시아는 일본과 거의 동시에 1640년 모스크비틴(И. Ю. Москвитин)이 이끄는 러시아 카자크 부대가 오토츠크해로 가서 사할린 주민들에 대한 첫 정보를 얻었다. 1645년 포야르크프(В. Д. Поярков)가 이끄는 아무르 탐사대가 처음으로 사할린의 북서쪽 해안을 탐사했다(이은경 2021). 16세기에서 17세기에 사이 에벤크인과 율타인(오로크인)과 같은 유목민들이 대륙에서 사할린으로 이주해 왔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된 이후, 니브호인은 러시아인, 만주인, 일본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담당했다. 니브호인은 아이누인에게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점차 그들 사이에 교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787년 라페루즈(La Pérouse, Jean François de Galaup)⁶⁾가 이끄는 프랑스 탐험대가 사할린 연안을 탐사하였다. 이후 1803년에서 1806년까지 기간에는 크루젠시테른(И.Ф. Крузенштерн)의 지휘하에 ‘나데즈다(На-дежда)’와 ‘네바(Нева)’ 범선이 러시아 최초로 세계 일주 원정에 나섰다. 1805년 5월 14일 사할린에 접근하던 크루젠시테른의 배는 아니바 만에 정박했다. 이때까지도 사할린은 본토와 모래 지협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도로 간주되었다.

사할린이 섬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1808년 마쓰다 덴주로(松田十郎)와 마미야 린조(間宮林藏)가 이끄는 제4차 사할린 조사대에 의해서였다. 1808년 조사에서 좌우로 갈라져 전진하다가 만나면서 반도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지도제작자들은 한동안 사할린을 반도 형태로 지도에 그려 넣었다가 1849년에 이르러서야 이곳이 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정은 네벨스코이(Г. И. Невельской) 탐사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네벨스코이는 러시아 수송선 ‘바이칼(Бай кал)’을 이끌고 아무르 강어귀를 조사했다. 러시아 선원들은 사할린과 본토 사이의 해협인 아

6) 1787년 5월 27일 라페루즈 탐험대는 서양인 중 최초로 울릉도를 발견하였다. 탐험대는 울릉도를 실측하였고, 탐험대원 중 이 섬을 가장 먼저 발견한 천문학자 다즐레(Dagelet)의 이름이 붙여진 이래 1950년대까지 150년간 서양 지도에서는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국립해양박물관 2016).

무르강 어귀의 남쪽 입구를 발견하여 사할린이 섬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이렇게 사할린의 정보가 알려지면서 이곳을 향한 러시아와 일본의 야욕은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아무르 하류와 사할린을 점령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겪었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 사할린으로 들어와 정착한 원주민들은 몽골의 침략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 시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갈등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⁷⁾

Ⅲ. 소니문화(культура Сони)의 고고학적 배경

사할린의 구석기문화에서 신석기시대로 이행하는 시기는 발굴된 유적들을 통해 대략 13,000-9,000년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은 아고니끼-5(Огоньки-5), 소콜(Сокол), 올림피아-5(Олимпия-5), 포르치예-4(Поречье-4), 슬라브나야-4(Славная-4), 슬라브나야-5(Славная-5), 푸가체보-1(Пугачево-1)를 들 수 있는데 아고니끼-5 유적은 연대가 23,000년까지도 보고 있다.

소니문화는 사할린 남부 신석기시대 중기문화로 방사성탄소연대 결과는 5,500-5,300년 전으로 나타난다(Kunikita et al. 2007). 지금까지 25개 정도의 유적이 발굴되어 이 지역의 문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할린 남부 지역(모네론 섬 포함)만을 한정했으나 2000년대 이후 북위 50°와 52°선에서도 발견되어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의 주거지들은 모두 바다를 바라보는 해안 절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발 70m 높이의 절벽을 통해 주변환경을 활용한 방어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7) 장기간 러시아인은 본토의 서쪽에서, 내몽골자치구와 아무르강에 거주하던 오로촌인은 중국에서, 아이누인은 홋카이도에서, 니브호인은 아무르강 하구에서 사할린으로 건너왔다. 바다로 둘러싸인 사할린은 풍부한 사냥감과 어족자원으로 다양한 종족집단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다. 1895년 무렵 사할린에는 130개의 마을에 25,495명의 러시아인, 2,000명의 길랴크인, 1,400명의 아이누인, 750명의 오로촌인 및 200명의 퉁구스인이 살고 있었다(이은경 2021).

이 중 대표적인 주거 유적인 쿠즈네초보-3, 4(Кузнецово 3, 4), 스타로두부스꼬예-3(Стародубское 3), 슬라브나야-4(Славная 4), 차이보-6(Чай во 6) 유적들을 통해 사할린 남부 신석기시대 중기의 문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쿠즈네초보-3, 4 주거 유적

사할린 섬의 최남단 라페루즈 해협에서 북으로 22km 지점에 위치한 주거지 유적이다. 쿠즈네초보 강을 왼쪽으로 끼고 해발 6-15m 높이에 형성되었다. 1937-1940년대 일본인 고고학자인 기무라 신로쿠(Kimura Sinroku)와 이토 노부오(Ito Nobuo)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근처 강의 아이누식 지명을 따라 ‘소니’ 유적으로 명명하였다(Нилюка & Утагава 1990). 979년부터 시작된 발굴은 골루베브(Голубев В. А.)와 바실리에브스끼(Василевский А. А.)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985-86년 수혈주거지 두 곳을 발굴하였다. 발굴 면적은 200㎡이었으며, 3호 주거지에서 획득한 불탄재의 분석을 통해 2개의 절대연대(5770±140년, 5960±140년)와 4호 주거지(5648±460년)에서 1개의 결과값을 확인하였다(Василевский 1995). 이들 주거지에서 남서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심하게 훼손이 되었지만 일부 남아 있는 주거지의 양상을 통해 3호 주거지와 같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구멍을 뚫은 석제품과 함께 토기가 발견되었다. 현대에 이르기 까지 개간이 계속된 지역으로 이 주거지들과 유물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2> 쿠즈네초보-3 출토 소니유형 토기



• Василевский & Грищенко(2016)

2. 스타로두부스코예-3 주거 유적

이 유적은 1930년대 일본인 고고학자 이토에 의해 발견되었다. 규모가 큰 마을인 스타로두부스코예 3(3지점) 마을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견된 양식의 주거 양상과 함께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 해안 테라스의 12-15m 지점에 위치한다.

154호 주거지와 문화층을 통해 소니문화로 분류되었으며, 초기 철기시대 또는 후기 신석기시대로 보고되었다(Василевский & Плотников 1992). 주거지에서 나온 목탄 분석을 통해 얻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은 6588 ± 125 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기 내벽의 탄소 침전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방사성연대 측정값보다 더 오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8660 ± 70 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스타로두부스코예-3 출토 간석기



• Василевский & Грищенко(2016)

3. 슬라브나야-4 주거 유적

2006년 두 번의 발굴을 통해 슬라브나야-4 주거지는 소니문화로 분류되었다. 2회차 발굴에서 이른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각각 8100 ± 50 BP, 8135 ± 50 BP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보여주었다(Грищенко

2011). 하지만 소니유형 토기의 출토로 보아 이 주거지의 연대는 6,200-5,5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3회차 발굴에서는 주거지가 5,450-5,1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슬라브나야 4 주거 유적은 이른 신석기시대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토기 내벽의 두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2회차 발굴 출토 토기는 내벽 두께가 10-16mm이지만, 3회차 발굴 출토 토기의 내벽두께는 9-10mm로 소니문화 토기는 후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기 성형 과정에서 두께는 얇게 하면서 강도는 높일 수 있는 성분들이 토기 성형 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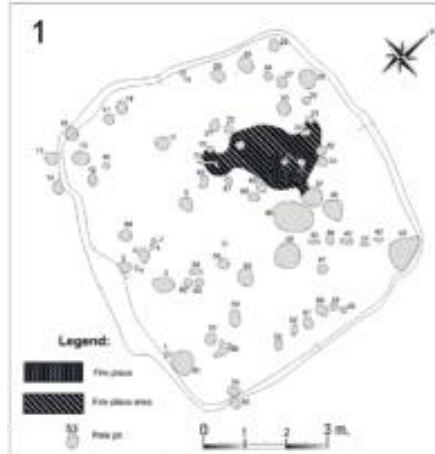
4. 차이보-6(2지점) 주거 유적

차이보-6(2지점) 주거 유적은 그리센코(2008)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소니문화의 편년설정과 문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남쪽이 아닌 사할린 북부 차이보 만 유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거지 크기는 6×6m 정도이며, 북쪽벽에 화덕이 조성되어 있다. 방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균일한 벽체와 복도 및 출구를 확실히 갖추고 있다. 주거지 형태와 발견된 도구들은 소니문화유형으로 분류된다. 출토된 석기들은 양쪽으로 다듬어진 칼날을 비롯하여 길이 10cm 내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발굴을 통해 수습된 토기들은 복원이 가능해 토기 2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토기의 모습은 평평한 저부와 둥근 몸체와 함께 구연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6>). 토기 표면은 대체적으로 거칠고 불에 탄 흔적이 잘 남아 있다. 황갈색을 띠고 있는 동체부 표면에는 문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목탄 시료를 통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화덕 시료는 6945±90년을 나타냈으며, 벽 근처 시료에서는 6895±100년의 결과 값을 얻었다.

신석기시대 소니문화유형에 대해서는 슈빈 외(Шубин 1982), 골루베브 외(Голубев 1986), 골루베브(Голубев 1987), 바실리에브스키(Василевский 2008) 등이 연구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유적과 유물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소니문화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림 4> 차이보-6(2지점) 주거 유적



▪ Василевский & Грищенко(2016)

<그림 5> 소니문화의 신석기시대 유적



1. 모네론 섬, 콜로게라스(Бухта Кологераса о. Монерон)
- 2-3 쿠즈네초보(Кузнецово 3)
4. 코브리쉬카산 빈디스 곳(Мъс Виндис гора Коврижка)
5. 고르노자보드스크(Горнозаводск 2)
6. 슬뤼드 곳(Мъс Слюда)
- 7-8. 미추레브카 1, 2(Мицулевка 1, 2)
9. 사도브니끼 2(Садовники 2)
10. 피오네르 1(Пионер 1)
- 11-12. 돌린스크 1, 5(Долинск 1, 5)
13. 체호프 1(Чехов 1)
14. 스타로두부스코예 3(Стародубское 3)
15. 노보시비리스크예 1(Новосибирское 1)
- 16-17. 펜젠스코예 2, 3(Пензенское 2, 3)
18. 슬라브나야 4, 5(Славная 4, 5)
19. 브즈모리예(Взморье 2)
20. 일린스크 6(Ильинск 6)
21. 크라스노고르스크 1(Красногорск 1)
22. 일리보 3(Пильво 3)
23. 뉴이보(Ный во)
24. 벤스코예 5(Венское 5 и 25)
25. 차이보 6 2지점(Чай во 6 пункт 2)

▪ Василевский & Грищенко(2016)

5. 주거지와 토기를 통해 본 소니문화의 특징

(1) 주거지

대표적인 소니문화의 주거지인 쿠즈네초보 3, 스파로두부스꼬예 3, 슬라브나야 4 주거지들은 모서리가 무딘 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표면에서 최소 0.15-0.25m 땅속으로 조성되었으며 최대 0.5m까지 파고 들어간 것도 있다(반수혈주거지). 일부에서는 0.8-0.9m 높이의 벽체가 조성된 것도 발견되었는데 모두 모서리가 무딘 방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의 길이는 보통 지름이 4m에서 큰 것은 10m까지 다양하다. 또한 외부출입구를 조성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주거지 바닥에는 기둥구멍이 있으며 벽면 밑에는 좁은 홈이 조성되어 있다. 쿠즈네초보 3 주거 유적의 2기, 스파로두부스꼬예 3에서 1기, 슬라브나야 4에서 1기의 화덕이 발견되었는데 조몬문화와 달리 소니문화에서는 화덕 주위에 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토기

소니유형의 토기는 점토에 광물을 포함한 천연 첨가제가 도입되었다. 첨가제의 재료로는 바다 연체동물 또는 잘게 썬 풀 등이 포함된다. 토기를 만드는 기술은 점토띠를 감아 올리는 형태를 보이며 표면은 시문이 없는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토기 표면은 젖은 손으로 정리하였으며,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유약 등을 사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태토의 산성도가 산화를 유발하여 토기에 불순물과 구멍이 형성되어 투수성이 높아져 강도가 약해지게 된다. 토기는 보통 400-500℃ 사이에서 구워지고 토기 색깔은 밝은 갈색을 띠고 있다. 토기의 형태는 모두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바닥은 평평하고 각진 방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며 구연부가 넓게 열려 있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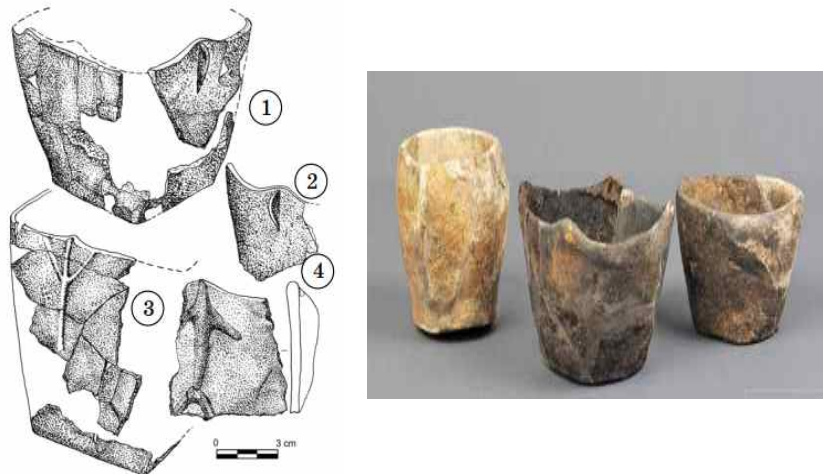
토기 몸체는 대부분 직선이며 구연부에서 살짝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표면은 대부분 문양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단한 도구를 통해 작은 물결

모양이나 가로, 세로로 장식된 토기들도 발견된다. 토기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작은편이다. 높이는 10-20cm 사이이며, 바닥의 직경은 7-12cm, 구연부의 직경은 12-15cm 내외이다. 토기의 두께는 6-8cm이며, 두꺼운 것은 1cm까지 한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비교한 결과 토기제작 발전과 시대 구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쿠즈네초보 3, 슬라브나야 4(2회 발굴), 차이보 6 주거지의 연대가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며, 슬라브나야 4(3회 발굴), 쿠즈네초보 4 등을 비롯한 다른 유적들은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골루예보 외 1986). 쿠즈네초보 3, 슬라브나야 4(2회 발굴), 차이보 6 주거 유적 출토 토기들은 토기 두께가 균일하지 않지만, 슬라브나야 4(3회 발굴), 쿠즈네초보 4 출토 토기들의 두께는 6-8mm 내외의 균일한 외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단계의 토기들은 장식이 없거나 토기 표면에 간단하게 수직으로 돌출되게 장식한 것이 보통이다. 후기로 갈수록 표면에 좀 더 복잡한 기하학 무늬의 장식을 하게 된다.

<그림 6> 소니유형 토기 사도브니끼 2(Садовники 2)주거지 출토



· 슈빈(Шубин 1982)

IV. 중기 신석기시대 원주민의 삶과 해양자원 활용

플라이스토세 말기 지구온난화의 결과로(15,000-12,000년 전)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아 지구에는 극적인 해수면의 상승이 나타났다. 지금과 비교하면 해수면은 3m 정도 높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호수, 늪, 강들이 만들어지며 수생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대형육상 동물의 감소를 가져 왔으며 수천 년 동안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표 1>, <그림 8>).

고고학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할린 원주민의 자원활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사할린 동쪽지역 석회암 동굴에서(12,000-8,000년 전) 발견되었다. 적어도 10,000명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덕, 석기, 부서진 동물 뼈조각(곰, 늑대, 점박이사슴, 사향노루, 땅다람쥐 등), 호랑이, 동굴사자, 그리고 어린이의 유치가 함께 발견되었다. 오스탄틴세바야 동굴에서는 곰의 두개골에 박편석기가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창끝에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창을 통해 산과 바다에서 큰 동물들을 사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냥은 육상동물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섬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찾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끊임없이 식량을 찾기 위해 이주하게끔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동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게 된다. 오호츠크해와 동해의 섬 지역에서 신석기시대로의 이행이 진행되는데, 초기에는 계절적인 조건으로 한정되었다. 겨울에는 사냥꾼들이 얼음 위에서 물개를 잡고, 봄에는 5월에서 11월까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바다동물을 잡았다. 연어 시즌은 계속되었고, 가을에는 사냥뿐만 아니라 열매 채집 또한 효과적이었다. 이런 생계방식은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가용 자원의 안정화를 가져오게 되며 해안 근처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림 7> 해양포유류 공예품 및 어망 봉돌



•Василевский & Грищенко(2016)

사할린의 초기 신석기 문화는 50여 개의 유적을 통해 알려졌는데 일부만이 발굴된 상태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초기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남쪽의 스파로두브스코예 3(하층), 포레취예 4와 북쪽의 임친-1, 오도푸토-1 그리고 섬 중앙의 바이다 산의 동굴 유적인 오스타트세바야가 있다. 발견된 유물의 분석을 통해 초기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낚시도구를 제작했으며, 좁돌날을 계속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들은 곳곳에 형성되었는데 해안가와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주거지는 만 연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시기 사람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에서는 수많은 목제도구와 함께 선박제작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6천 년 전 남서부 사할린의 신석기시대 원주민들은 작은 섬 등을 이동하며 해양포유류를 포획하기 위해 계절별 사냥여행을 떠났다. 석기와 토기의 절대연대 측정을 통해 이런 생계방식의 편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문화층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12,000-11,000년, 8,000-6,000년 그리고 3,700-2,500년으로 구분된다. 이 기간 동안 섬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안정적인 삶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한정된 자원에 대한 갈등 상황이 야기되며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전 시기와 달리 신석기시대가 되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게 되는데 우선 물고기와 동물을 포획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강 이외에도 심해에서 사는 상어, 돌고래 그리고 바다표범, 바다사자 등의 포유

류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낚시도구와 선박과 같은 운송수단의 제작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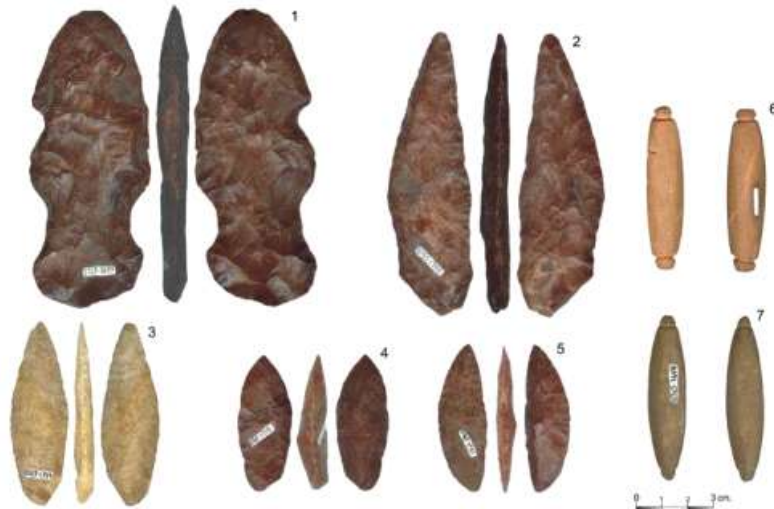
중기 신석기시대 소니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쿠즈네초보 3, 사도브니키 2, 브흐타, 스파로두브스코예 3 주거지들은 사할린 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네모난 바닥을 갖고 있는 소니유형 토기는 중부 및 북부 사할린에도 나타난다. 7,000-6,000년 전 등장한 이 원주민들은 주로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해양자원을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 정도로 해양자원을 토대로 한 문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니문화는 800-1,000년 정도 존속되고 사라진 것으로 러시아 학계는 보고 있다. 인접한 홋카이도와 쿠릴열도와 달리 소니인들의 주거지는 원형이 아닌 방형의 주거지를 짓고 살았다. 반수혈 주거지 안에 화덕은 중앙이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벽체 앞으로 지붕 기둥들이 있다. 스파로두브스코예 3 주거지에서는 견과류, 해양동물, 새뼈가 발견되었다. 또한 쿠즈네초보 3 주거 유적에서는 대형 어류와 물개의 척추뼈가 출토되었다. 이는 남부 사할린의 소니인들의 삶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의 크기는 4-8m의 폭으로 5-6채의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와 접하는 만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 모두에서 다량의 물고기와 물개의 뼈가 발견되어 소니인들의 생계경제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어로 생활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강을 끼고 있는 50km의 해안가를 따라 4-5개 주거군이 분포하고 있고, 한 주거군에는 보통 50-200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러시아학계는 소니문화에 대한 기원과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토기 태토의 혼합물, 구연부의 삼각형 돌출부의 존재, 표면문양 장식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자생적인 문화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갖고 온 문화로 보고 있다. 특히 남쪽에 기반한 초기 조몬시대⁸⁾ 문화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를 보여준다. 소니 토기 유형은 조몬시대 토기와는 차이가 나는데 조몬토기가 토기 표면에 새끼줄 문양이 있는 반면에 소니토기 유형은 몸체에 거의 문양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초기 신석기시대 새로운 전통인 조몬시대 토기에는 토기 표면 전체에 시문이 되어 있다. 소니 토기 유형은 토기 디자인의 단순함에서도 차이

8) 조몬시대(縄文時代)는 일본의 신석기시대 중 기원전 1만 4,5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석기시대의 구분으로는 기원전 7,000년까지의 전반기는 후기 구석기시대, 후반기는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 난다. 소니 토기유형 단계에서는 바닥이 평평하고 사각형을 띠고 있지만, 조몬토기는 바닥이 뾰족하고 둥근 형태를 갖고 있다. 일본 남부 초기 조몬시대 토기에 사각형 및 타원형의 전통이 나타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소니유형 토기와 홋카이도의 초기 조몬시대 토기 유형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구연부의 삼각형 돌출부의 존재와 표면 장식 등의 소니유형 토기는 일본 열도 북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형태이다. 이런 장식은 남쪽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할린에 5,000년 전에는 이미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슬라브니아 주거지 출토 석기 및 골제 어망봉들



• Василевский & Грищенко(2016)

소니문화의 남쪽 경계는 라페루즈 해협 남쪽으로 그 밑으로는 소니유형의 토기가 발견된 적이 없다. 소니 토기 유형은 형태와 기술적 차이로 콘돈, 보이스만, 루딘 문화 유형의 토기보다 고식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소니 문화의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 지역 문화와는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 실제로 흑요석은 사할린의 초기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소니 문화 유적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좀 더 이른 시기의 층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소니문화 주민들에게는 어

편 이유에서든 후요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소니문화 주민들은 북쪽에서 온 이민자 집단으로 추정되는데 크릴론 반도가 초기 조몬인들의 이주에는 자연지리적 경계로 작용하여 이주에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시기 얇게 다듬어진 화살촉의 경우 소니 문화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고학 자료는 이주민에 의한 갑작스러운 교체로 인한 문화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게 해준다.

<표 1>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지역 신석기시대 편년

구분	문화유형	연대	비고
시베리아	키토이(Китойская)	5,000-4,000 BP	신석기 중기 후반
	이사코보(Исаковская)	5,000-3,000 BP	신석기 후기
	세로보(Серовская)	4,000-3,000 BP	신석기 후기말
아무르강 중류	그로마투하(Громатухинская)	13-9,000BP	신석기 전기
	노보페트로브카(Новопетровская)	10-8,000BP	신석기 전기 후반
	오시노오제로(Осиноозерская)	4,500-3,700 BP	신석기 후기
아무르강 하류	오시포브카(Осиповкая)	13-10,000 BP	신석기 전기
	마린스카야(Маринская)	9-7,000 BP	신석기 전기 후반
	말리셰보(Мальшевская)	7-4,500 BP	신석기 중기
	콘돈(кондонская)	7-5,000 BP	신석기 중기
	보즈네세노브카(Вознесеновская)	4,9-3,300 BP	신석기 후기
연해주	보이스만 2(Бой сманская 2)	7-5000 BP	신석기 중기 초반
	루드나야(Рудная)	5,500BP	신석기 중기
	자이사노프카(Зай сановская)	5,370-3,500BP	신석기 후기
사할린	소니(Сони)	6,7-5,800 BP	신석기 중기
	임친(Имчинская)	5,5-2,400 BP	신석기 후기

소니문화의 원주민들은 주변환경에 잘 적응한 결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수렵과 어로의 생계양식을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모네론 섬 콜로게르사유적이다. 섬 사이의 협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과 선박이 필요하다. 모네론 섬의 주된 생계 활동은 해양 동물의 사냥과 채취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다. 섬에는 토지를 활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연어는 모네론 강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니문화의 원주민들은 모네론 섬의 바다포유류를 사냥하는데 매력을 느꼈으며 적당한 장소로 콜로게르사를 선택했던 것이다.

소니문화 원주민들의 주거지는 주로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에서 보이는 층위로 보아 소니문화의 주된 시기는 중기 신석기시대로 보여진다. 아직 소니문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홋카이도 등의 북부보다는 남쪽 조몬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9>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사할린의 신석기문화



1. 그로마뚜하문화
2. 노보페트로프카문화
3. 오시포프카문화
4. 마린스카야문화
5. 말리세보, 콘돈, 보즈네세노프카문화
6. 루드나야문화
7. 베트카문화
8. 보이스만문화
9. 자이사노프카문화
10. 사할린 신석기시대문화

• Popov & Andrei(2008)

V. 맺음말

한반도의 선사문화는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그리고 사할린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시대에 걸쳐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석기시대 고고학 연구성과들과 관련하여 우리 학계는 러시아학자들의 최근 연

구성과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시각으로 러시아 연구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결과는 양 지역 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양측이 제시한 시대 구분과 연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양측의 연대 차에 대한 검토 및 정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양 지역의 자료를 양측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할린의 고고학 발굴 연구성과는 그간 국내 학계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사할린의 중기신석기시대 문화인 소니문화를 소개하고 원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지역과의 신석기시대 편년 관계도 살펴보았다.

고고학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신석기시대 사할린 원주민의 자원활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사할린 동쪽 지역 석회암 동굴에서(12,000-8,000년 전) 처음 발견되었다. 소니문화는 사할린 남부 신석기시대 중기문화로 5,500-5,300년 전 출현해 800-1,000년 정도 존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25개 정도의 유적이 발굴되어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적들은 대부분 바다를 바라보는 해안가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지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거 유적인 쿠즈네초보 3, 4(Кузнецово 3, 4), 스타로두부스꼬예 3(Стародубское 3), 슬라브나야 4(Славная 4), 차이보 6(Чайво 6) 유적들은 평면형태가 사각형인 반수혈주거지들이다. 4-5개의 주거지들로 구성된 주거군이 해안가에 따라 집중분포 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화덕과 함께 바닥이 평평하고 몸체가 네모난, 표면 장식이 없고 삼각형 돌출부가 구연부에 장식된 소니유형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주거지에서 어망추, 해양동물 형상의 공예품 그리고 대형어류와 해상포유류의 뼈들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소니문화 원주민들은 해양을 토대로 사할린섬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할린섬의 중기 신석기시대에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신석기시대의 양상을 그려보는 데는 다소 부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앞으로 꾸준한 자료검토와 연구를 통해 사할린섬의 신석기시대 모습을 복원하고 동북아시아 전체 지역의 신석기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인욱 (2021).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동북아역사논총』. 71호, pp. 9-54.
- 국립민속박물관 (2000).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_____ (2016). 『라페루즈의 세계일주 항해기 1, 2』. 국립해양박물관.
- 김재윤 (2017). 『러시아 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 서경문화사.
- 방민규 (2015). “동시베리아 연바이칼 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9집. 2호, pp. 1-34.
- 윤성학 (2021). 『모피로드』. K북스.
- 이은경 (2021). “동북아시아 교류와 충돌, 혼종문화의 점점 사할린.” 『유럽사회문화』. 제27호, pp. 189-219.
- 이현중 (2007). “시베리아 후기구석기문화의 최근 연구와 공동연구의 전망.” 『한국구석기학보』. 제16호, pp. 81-96.
- _____ (2018). “동북아시아 후기구석기시대 초기 현생인류의 등장과 확산기의 문화적 역동성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제1권. 제38호, pp. 21-41.
- 정석배 (2008). “쁘리바이칼 지역의 신석기문화.”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권. 2호, pp. 1-60.
- Alkin, S. V. (2014). “동시베리아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 『문물연구』. 25권. 25호, pp. 161-191.
- Kunikita D., K. Yoshida, Y. Miyazaki, K. Saito, A. Endo, H. Matsuzaki, S. Ito, T. Kobayashi, T. Fujimoto, A. M. Kuznetsov, A. A. Krupyanko and A. M. Tabarev (2007). “Analysis of radiocarbon dates of an archaeological site in the Russian Far East: The marine reservoir effect as seen on charred remains on pottery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고학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분석결과).” *Nucl. Instr. and Meth. in Phys. Res.* Vol. 259. No. 1, pp. 467-473.
- Popov, A. N. and V. T. Andrei (2008). “Neolithic cul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Technological evolution and cultural sequence (러시아 극동의 신석기문화).” *Turkish Academy of Sciences Journal of Archaeology*. Vol. 11, pp. 41-62.
-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1995). “Коррекция радиоуглеродных датировок и абсолютная хронолог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о. Сахалин.”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pp. 93-110.
-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2008). *КАМЕННЫЙ ВЕК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사할린 섬의 석기시대).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книжноеиздательство.

-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2008). “Сони - культура среднего неолита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사할린섬의 중기신석기시대 소니문화).” *Неолит и неолитизация бассейна Японского моря: человек и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ндшафт*.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ВГУ, pp. 36-48.
-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and Грищенко, В. А. (2016). “ХРОНОЛОГИЯ, ПЕРИОДИЗАЦИЯ И ОСНОВНЫЕ ПРИЗНАКИ КУЛЬТУРЫ СОНИ (소니문화의 연대기, 시대편년 그리고 주요특징).”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No. 23.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pp. 30-46.
-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2017).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사할린섬의 고고학유적).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Апельсин».
- Голубев, В. А. and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1986). “Новые данные по археологии Сахалина: (Неолитическое поселение Кузнецово) (사할린섬의 새로운 고고학 유적).”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Сибир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науч. тр. ред. Деревянко А. П., Ларичев В. Е. Новосибирск: ИИФФ СО АН СССР, pp. 208-212.
- Голубев, В. А. (1987). “Жушиховская И. С. Не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свете анализа керам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토기분석을 통한 사할린섬의 신석기문화).” *Вопросы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АН СССР, pp. 25-33.
- Грищенко, В. А. (2008).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поселении Чай во -6 пункт 2,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차이보-6 2지점에 대한 발굴보고).” *Ученые запис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Вып. 7.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pp. 26-37.
- Нииока, Т. and Х. Утагава (1990).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사할린 남부의 고고학 유적). Саппоро.
- Яншина, Э. М. (1977). *Каталог гор и морей* (유적총람). М Наука.
- Шубин, В. О., О. А. Шубина and Горбунов С. В. (1982). “Не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사할린 남부의 신석기문화).” *Преприн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МГиГ, СОКМ.

| 논문투고일 : 2022년 05월 02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05월 21일 |

| 게재확정일 : 2022년 06월 12일 |

| ABSTRACT |

**A Study on Footprints and Resource Utilization
of Neolithic Natives in the Sakhalin Island:
Based on Sony Culture Materials of Middle Neolithic Era**

Pang, Minkyu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rchaeological remains such as dwelling sites and earthenware of Sony Culture which is a culture of Middle Neolithic Era in Sakhalin, and then to examine the aspect of resource utilization of middle Neolithic natives.

As a culture of middle Neolithic Era in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the Sony Culture seems to be continued for about 800-1,000 years after the initial appearance about 5,500-5,300 years ago. So far, about 25 remains have been excavated, and provided lots of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cultural aspect. All the remains are located in seashore cliffs facing the ocean, and most of the dwelling sites are distributed on the shore. The research subjects are the representative dwelling remains of Sony Culture such as Кузнецово 3, 4, Стародубское 3, Славная 4, and Чай во 6.

The natives of Sony Culture resided in the squared semi-pit dwelling sites, and their residential area composed of 4-5 houses is mainly distributed along the seashore. Inside the dwelling sites, there were a fire pot and Sony earthenwares with its flat bottom, squared body, and mouth part decorated with triangular projection without surface decoration. As a lot of fishnet weights, craftworks looking like marine animals, and bones of big fish and marine mammals have been excavated, it is possible to

guess that the natives of Sony Culture probably enjoyed an affluent life by fully adapting themselves to the environment of the Sakhalin Island based on the ocean.

- Key words: The Sakhalin Island, Native, Neolithic Era, Dwelling Site, Earthenware